



[산업] 갤럭시Z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 추첨 한정판매 08



Life

[라이프] 주요 백화점 추석 선물 판매 프리미엄 집중 11



택배·막노동... 투잡 뛰는 여행인들

코로나19 직격타 맞은 여행업계 타업종과 호환성 부족해 영향 커 택배·보험 등 투잡으로 생계 유지

10만 여행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생계유지가 우선이지만, 수입마저 만만치 않아 여행인들의 삶은 점점 고단하다.

지난 7~8월, 세계여행신문이 조사한 여행업계동향에 따르면 여행인들 사이에서 택배업무가 가장 인기가 높다. 자차만 있으면 별 다른 조건 없이 돈벌이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부지런히 일을 해야 월 100여만 원 쟁기는 것이 고작이다.

보험과 대리운전도 투 잡 중 상위권에 속한다.

여행경력 30년차 60대 A 대표는 보험설계사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매일 아침 출근해 교육을 받으면서 지인들을 위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보험영업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아직 이렇다 할 수익은 없는 실정이다.

여행경력 20년차 모골프전문여행사 50대중반 B 대표는 최근 대리운전기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입이 거의 없다. B 대표는 "막막한 심정에 대리기사 일을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녁 자리도 줄어 하루 몇만원 손에 잡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대형여행사 대리점을 운영 중인 50대 C 대표는 여행사대리점 간판 아래 휴대폰 간판도 같이 걸었다. 여행에 대한 문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임대료만 내자니 생계가 막막해 휴대폰가게를 겸업하면서 부수입을 얻으려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여행인들이 투잡 등 생계에 내몰리고 있다. /세계여행신문

50대 후반 여행사출신 D 대표는 이력서를 품고 다닌다. 지금까지 이력서를 제출한 곳만 50군데가 넘는다. 이미 자치구 관광안내소나 관광매니저 등 관광업종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나이 제한에 걸려 일을 못하고 있다. 그는 오늘도 이력서를 가방에 넣고 채용업체를 물색 중이지만 합격통보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나이제한은 편의점 업종도 마찬가지다. 60대 국내여행사 출신 E 대표는 심야시간을 활용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에 응시했다가 나이제한에 걸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아쉬워했다.

50대 중반 여행사 F 대표는 운 좋게 호텔주차관리원으로 채용이 되었지만 코로나19확산세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호텔 측이 문을 닫게 되자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잃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50대 초중반 가

장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막노동 현장에 뛰어들면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가장들은 자녀의 학자금과 학원비 등을 벌려면 최소 200만~300만 원 이상의 월 생활비가 필요하다보니, 생전 경험해 보지도 못한 건설현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기존에 동남아 노동자들이 하던 막노동을 이제 생활자금이 절박한 여행인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고 있다.

모 여행사 대표는 "코로나 이전 발권한 항공권 미수금을 받기 위해 해당 여행사 대표에게 연락했더니, 막노동을 하다 다쳐 1개월째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며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기위해 막노동을 하다 다쳤다는데 빚 독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국민들의 행복 파수꾼 역할을 해 왔던 여행인들이 이제는 체면도 구겨가며 생업전선에 나서고 있다. 여행업은 특히 타업종과 달리 상호 호환성이 부족해, 여행업 이외 달리 할 만한 직업이 없다보니 여행인들이 더욱 코로나19의 후유증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여행업계 전문지 세계여행신문이 조사한 지난 상반기 현재 전국 여행사는 총 21만671개로, 전년 동기 22만115개보다 444개가 줄어들었다. 1개 여행사당 4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84만명 가량의 여행사 직원들이 있지만 무등록 여행업체까지 합치면 총 10만 명 이상의 여행인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민희 기자 lnh@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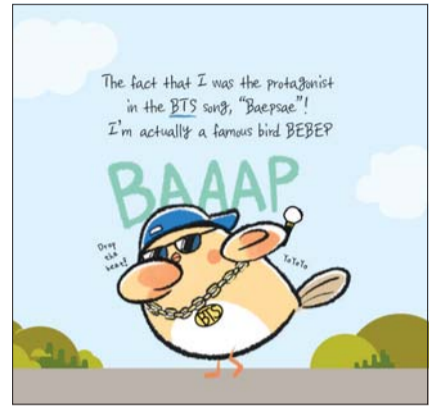
서울관광재단, BTS와 서울관광 매력 알린다

관광홍보영상 카운트다운 7편 공개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9월 11일, 2020 서울관광홍보영상 본편 전 세계 동시 공개를 앞두고 카운트다운 광고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관광홍보영상 본편 공개 일주일 전인 9월 4일을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매일 한 편씩 방탄소년단 멤버별 총 7편의 카운트다운 영상을 공개한다.

총 7편으로 구성된 카운트다운 영상에서는 서울명예관광홍보대사 방탄소년단이 직접 서울관광홍보영상 본편 기대 메시지를 전한다.

방탄소년단의 '서울에서 만나요, See You in Seoul' 서울관광홍보영상 본편은 9월 11일 VisitSeoul 서울관광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서울관광 디지털 가이드 뱀이 /서울관광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세계 동시 공개된다.

본편 영상 공개 이후에도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가 진행되며,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향후 진행될 추가 프로모션은 서울관광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민희 기자

경주엑스포 마스코트 '화랑·원화' 캐림픽 출전

캐릭터 스타 선발대회서 우승 도전

(재)문화엑스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식 마스코트인 '화랑'과 '원화'가 2020년 최고의 캐릭터 스타 선발대회인 '우리동네 캐림픽 어워즈'에 출전했다고 6일 밝혔다.

'제3회 우리동네 캐림픽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3회째 대회다.

지자체 및 기관의 정책, 관광, 축제 등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참가대상이다. 올해 예선에는 지역부문 63개와 공공부문 37개 등 100개의 캐릭터가 참가했다.

예선전은 온라인투표(9.1~9.10) 80%와 전문가심사 20%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32개 작품이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은 온라인투표(9.21~9.30) 80%와 오프라인투표 20%로 가려진다. 최종 선발된 16개의 캐릭터를 시상



'2020 우리동네 캐림픽 어워즈'에 처음 참가한 경주엑스포 마스코트 화랑과 원화 /문화엑스포

하게 된다. 총 상금은 3000만원이다.

신라 전통의상을 착용한 화랑과 원화의 환한 미소에는 신라의 문화적 자긍심이 가득 배어 있다. 친근한 외모로 20여 년간 온·오프라인에서 종합무진 활약하며 한국의 역사문화수도인 경주와 경주엑스포를 홍보해 오고 있다. /이민희 기자

포레스트 파크 자연서 '안전한 휴식' 즐겨요

휘닉스 평창

회원전용 장기투숙 상품 출시 식음·골프 등 다양한 체험 혜택

연일 지속되는 태풍과 장마로 인해 휴가다운 휴가를 보내지 못한 이들에게 점점 일상에 지쳐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9월 첫째 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씨치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불안과 무기력, 분노 등의 우울증을 느낀 적이 있는 이들은 질문에 74.4%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마음 놓고 휴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에 자연으로 둘러싸인 산이나 숲으로 떠나 독립된 공간에서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휴식을 즐기려는 욕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휘닉스 평창은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안전하게 휴식도 즐길 수 있는 회원전용 장기투숙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변수로



휘닉스 평창이 포레스트 파크 장기투숙 패키지를 출시했다. /휘닉스 평창

인해 오랫동안 머물러야 할 공간이 필요한 경우, 안전한 곳에서 머무르며 마음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포레스트 파크의 푸르른 자연 속 양질의 휴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장기투숙 중 식음이나 골프 등의 다양한 체험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번 회원전용 장기투숙 패키지는 객실 타입 및 혜택에 따라 두 가지 타입 중 선택할 수 있다. 프리미엄 타입 7박 상품의 경우 호텔 스페리어 객실을 이

용, 조식(또는 중식) 매일 2인 이용, 아베토 라운지 커피 50% 할인, 태기산CC 9홀 이용권 10매를 제공한다.

럭셔리 타입 7박 상품은 호텔 스위트 객실을 이용하고, 조식(또는 중식) 매일 2인 이용, 아베토 커피 50% 할인, 미니바 무료이용, 아베토 와인 마리아주 3회 이용, 태기산CC 9홀 이용권 10매와 골프백 보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통으로는 관광곤돌라 무료 이용과 매일 객실정비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민희 기자

KTX 부산역서 '관광기념품 전시회' 개최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등 전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오는 9월 8일까지 KTX 부산역 2층 맞이방에서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전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기념품을 제작하는 장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품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으로, 트렌드를 반영한 나전칠기, 공예품 등 다양한 관광기념품이 전시된다.

관광협회중앙회는 한국의 고유문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화를 반영한 고품질의 관광기념품 육성을 위해 '한국관광명품점' 운영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의 국내외 홍보 및 유통지원, 온라인 쇼핑몰 운영,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운영(인사동, 동대문, 인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민희 기자